

오늘 스승의 날... 제자사랑 헌신한 선생님들

봉사활동 함께 하며 탈선 막은 '참 스승'

■박경숙 광주 양산중 교사
폭행·흡연 징계 대신 관심
학생들 공동체 삶 깨달아

#1 지난해 봄 A중학교 3학년 배수지(가명)양은 집단폭행 주동자로 위기를 겪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사건은 커졌고,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열어 전학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담임으로서 그럴 수는 없었다. 책임지고 봉사활동으로 지도하겠다고 호소해 가까스로 전학은 면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요양병원 봉사활동이다. 댄스를 무척 좋아했던 수지는 봉사활동을 하며 변했다. 처음엔 낯선 노인들께 다가가는 걸 어려워했지만 몇 번 다니면서 익숙해졌고, 할머니·할아버지께 웃음꽃을 심어줬다. 수지는 봉사활동 가는 걸 무척 즐거워했고, 봉사 동아리 회장에 도전해 회장이 됐다. 요양병원에서 수지는 봉사단·댄스팀·카리스마장으로 통한다. 예전엔 멀리하던 친구들이 다가왔고,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1년 뒤 수지는 특성화고에 아슬아슬 합격한 뒤 영영 웃었다. "선생님,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13일 해남 우수영고 첫 제자사랑(왼쪽부터 김말래·문수진·양현정·최은희)이 은사였던 박경숙(가운데) 교사를 찾아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2학기말 230명 중 210명이었던 그는 공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징계처리를 사회봉사로 돌려 지도하겠다고 자처했다. 그게 봉사활동의 출발이었다. 이 때 봉사의 힘을 확인했다. 억지춘향격으로 끌려간 봉사활동이라 치매 환자들에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치매병원 봉사를 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치매 할머니의 식사를 돕던 한 학생이 입가로 흐르는 침을 닦아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바뀌었다. 그제 봉사의 힘이. 박 교사는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가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공동체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임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봉사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징계처리를 사회봉사로 돌려 지도하겠다고 자처했다. 그게 봉사활동의 출발이었다. 이 때 봉사의 힘을 확인했다. 억지춘향격으로 끌려간 봉사활동이라 치매 환자들에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치매병원 봉사를 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치매 할머니의 식사를 돕던 한 학생이 입가로 흐르는 침을 닦아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바뀌었다. 그제 봉사의 힘이. 박 교사는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가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공동체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임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봉사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방황 학생들 장교로 이끈 '호랑이 선생님'

■박연중 광주 송원고 교감
진학부장때 질책하고 권유
한반 7명이 장교의 길 걸어

"총성!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지난 13일 광주 송원고등학교에 대한민국의 장교 4명이 방문했다. 김웅기·김기흥·엄병철 중위와 허지민 소위, 이들은 송원고 졸업생으로 방황하던 학생 시절에 호랑이 선생님인 박연중(56) 교감에게 혼이 난 뒤 깨우쳐 '장교의 길'을 걷게 된 동기들이다. 이들 외에도 장교 동기가 3명 더 있다. 장교 제자 7명은 1년 전 '매년 스승의 날에 모여 은사님께 감사함을 전하자'고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3일에 7명 중 4명이 모였다. 임무수행 탓에 3명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다. 대신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이들이 장교가 된 사연은 박 교감과 얽혀 있다. 유난히 친했던 이들은 어느 여름 밤 야간자율학습을 뒤로한 채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 놀다 돌아오던 길에 운도 없이 호랑이 선생님과 마주쳤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성적표가 공개된 날이었다. 부모가 불러오고 각서를 쓰는 등 혼이 났다. 이는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다시 의기투합했다. "정말 중요한 시기다. 공부해보자. 힘을 모아 서로 돕자고 다짐했다. 이들의 우정은 더욱 끈끈해졌고, 장교의 꿈을 함께 꾸게 됐다.



김기흥·김웅기·엄병철 중위와 허지민 소위(왼쪽부터)가 '장교의 길'로 이끌어준 박연중 교감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송원고 제공>

김웅기 중위는 "고 3때 친구들과 꿈을 같이 갖고 현실로 이뤄냈다"며 "제자들의 고민을 마음으로 들어주고, 격려하고, 응원에 준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 대한민국 장교 7명이 탄생하게 됐다"고 감사했다. 당시 진로진학부장이었던 박 교감은 푹푹 뭉쳐 어울려 돌아다니던 이들에게 장교의 길을 권했다. 단합이 잘 되고 활동적인 이들의 성격에는 '군인이 제격이다'는 진로지도 노하우가 발동한 것이다. 특히, 장교는 소신껏 활동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직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했다. 엄병철 중위는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로 장교가 됐다. 고교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던 엄 중위는 호남대에 입학했다가 조선대로 편입해 동기들과 함께 후보생 생활을 했다. 박 교감의 영향으로 이 반 전체 35명 중 7명이 대한민국 장교의 길을 걷고 있다. 또 이 후배 8명도 장교 임관 뒤 상무대에서 초등군사교육을 받고 있다. 박 교감이 장교의 길을 추천하는 이유는 자신이 장교 출신이기 때문이다. 박 교감은 전남대 학군장교(ROTC) 21기로 임관해 육군 28보병사단에서 포병장교로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했다. 이후 교편을 잡은 박 교감은 제자들에게 학업은 물론 올바른 국가관·안보관을 심어 주며 장교의 꿈을 키우도록 적극적인 진로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다. 박 교감은 "당시 제자들이 나타내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자 엄하게 지도하며 군인정신을 강조했는데 훌륭한 장교가 됐다"며 "후배들을 위해 자주 모교를 방문해 대한민국 군인의 위상과 자존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열사 유영봉안소 개관 14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에서 열린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건립 개소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음식물자원화시설, 현 시설론 악취 해소 어렵다

처리용량 현저하게 작아 부실 설계 가능성

광주 제 2공공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악취물질 법적 기준치 초과 배출<광주일보 13일자 6면>과 관련, 추가 설비 건립 없이 악취를 기준치 이하로 줄이는데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와 시공사측은 조사 결과,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방지설비 추가 건립이 불가피한 사실을 지난해 말 확인하고 고도 근부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 자세를 견지, 주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악취방지설비 용량이 다른 지역차단체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자원화시설 설계 과정부터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 '광주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측정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적 기준치가 넘는 악취 배출의 근본 원인을 '악취방지시설 처리 능력의 한계'로 지적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악취방지시설 용량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환경공단 보고서의 핵심 골자다. 악취제거 공정은 ▲1단계(천처리) ▲2단계(축열식연소장치·고온으로 악취를 태우는 시설) ▲3단계(3단계악취제거·액체약품으로 악취를 줄이는 시설) 등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2~3단계 처리 용량

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해당 시설 설비의 경우 서울 등 다른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비해 악취방지시설 용량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제2공공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의 경우 하루 30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2단계와 3단계 악취 처리 설비용량이 각각 분당 250m, 분당 1700m 수준에 불과하다. 광주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량(하루 95t)이 30% 수준인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2단계와 3단계 처리 용량이 모두 분당 3600m에 달한다. 하루 처리량이 260t인 고양시도 광주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6500 규모의 악취방지 처리 용량을 갖추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해당 시설 가동 4개월 만인 지난 2013년 10월부터 법적 기준치

를 웃도는 악취를 내뿜었던 것으로 확인한 바 있어 가동 전부터 충분한 악취방지를 위한 설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광주시에 추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했음에도 광주시는 시공사 측의 입장을 내세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가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주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시공사와 협의, 10월까지 배출되는 악취 문제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장애인 재활 제석근로사업장 계약 종료 불구 철수 거부 광주 남구,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제기

광주시 남구는 제석근로사업장 운영자와 복지법인에 대해 각각 출입금지 처분신청과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남구가 세운 제석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장으로, 지난 3월31일자로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남구는 그러나 지난 2년여간 해당 사업장을 위탁 운영해온 한울가복지재단 측이 1개월 이상 해당 시설에 머무르며 철수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남구는 지난달 23일자로 법원인도 해당 복지법인을 상대로 건물(시설)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한울가복지재단 측은 "최초 해당 사

업장을 운영하던 복지법인이 운영난으로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해 스스로 운영을 포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 7월부터 우리가 맡아 7억원을 투자해 흑자 전환시켰는데 인제 와서 재계약에서 탈락했다고 아무런 보상 없이 물러나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구는 이와 관련, "시설 위탁운영 계약기간 종료로 앞두고 정상적인 입찰을 거쳐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했으며, 한울가 측이 주장하는 투자비 7억원도 그 근거 약하다"면서 "한울가 측이 시설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곳에서 일해야 할 장애인 30여명이 재활은커녕 실업자로 전락,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광양항 화물선 기름 유출 U대회 축구장 개보수 관련 광주경찰청, 업체 소환키로

14일 오전 광양항에서 화물선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0분께 광양항 고철부두에서 철관 전용 화물선 동방에이스호(5566t급)에서 방카-C유가 유출됐다. 선장 박모(60)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방제정·경비정 14척과 민간선박 10척 등을 동원해 인근 200m까지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는 한편 14일 오후 6시 현재 방제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다. 해경은 보조탱크로 연료유를 수동 작업으로 옮기던 중 기름이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당시 400ℓ가 유출된 것으로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유출된 기름량(수용량 180t)과 피해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광주지방경찰청은 14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 입찰'과 관련, 입찰 관련 서류를 광주시에서 제출받아 검토하는 한편, 법원에 가져온 신청을 냈던 해당 업체 관계자를 잠금인 자력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시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 구매·입찰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 및 입찰 조사를 거쳐 제기된 특혜 의혹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씨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방승인 서세원(5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현우 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CCTV에 찍혀 부인하기 힘든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가 하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 ○...서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로 비 안쪽 름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 /연협뉴스